

전우원씨 오늘 5·18묘지 참배...전씨 일가 첫 '사죄행보'

유족·피해자도 직접 만나...당분간 광주 머물며 5·18 관계자 만나 오월단체 "공개 사죄 용기있는 일...더 많은 사죄·양심고백 이어지길"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가 31일 5·18 광주 학살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에게 사죄한다. 5·18 학살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 직계가족이 5·18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첫 사례다.

30일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에 따르면 전씨는 31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18 유족과 피해자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날은 먼저 전씨가 광주를 방문한 목적과 심경을 밝힌 뒤, 정성국 5·18공로자회 회장이 공법3단체 대표로 나서 전씨 사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5·18 유족 및 피해자 대표 3명은 이날 전씨를 직접 만나 각자 겪었던 5·18의 기억을 밝히고 심정을 전한다.

이들은 공법 3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이들이다. 유족회 대표로는 고교생 시민군으로 활약한 고

(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가 참여하며, 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군이나 학생을 버스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다 계엄군 집단 발포에 총상을 입은 김태수씨가 부상자회 대표로 참여한다. 또 항쟁 이후 상무대에 55일간 구금돼 폭행·고문에 시달렸던 김관수도 공로자회 대표로 자리한다.

전씨는 5·18기념공원에 있는 추모승화공간도 들른다. 이곳에는 5·18 피해 보상을 받은 사망자와 부상자, 행방불명자 등 4296명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전시돼 있다.

이후 전씨는 5·18기념재단 차량을 타고 11시 30분까지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 및 참배할 예정이다.

전씨는 5·18 첫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 공식 사망자 중 가장 어린 고(故) 전재수(11살·광주 효덕초 4년)군의 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전씨는 공식 일정 이후로도 당분간 광주에 머물며 기자회견·인터뷰를 하거나 5·18 관계자를 만나 사죄행보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단체들은 "공개 사죄를 결심한 것은 용기있는 일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죄를 받아들여주길"고 입을 모았다.

정성국 5·18공로자회 회장은 "자기 가족들을 대표해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러 광주까지 찾아온 것이 가상하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죄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을 갖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죄를 계기로 더 많은 사죄와 양심고백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컸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은 잘못을 인정 않고 뻔뻔하게 왜곡을 일삼은 채 사과 없이 죽었지만, 그 짐은 결국 후손들이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 상징적인 사례다"며 "이번호를 계기로 정호응을 비롯해 진상규명에 동참 않은 다른 당사자들도 양심고백 및 사죄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머리 숙인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가 3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호텔 앞에서 취재진에 인사를 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 온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제정 힘 보태 주세요"

"국민청원운동 앞장 서 달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광주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를 위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숨졌으며 생존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들까지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112 신고와 보호요청과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특수부 수사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끝났고 정부는 참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는 커녕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암담한 현실에서 굳게 단결해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5·18 광주시민들이 우리를 이끌어왔다"며 "광주와 전남 사·도민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10·29 진실버스는 27일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총 12개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판결문으로 본 총장으로 금은방털이 범죄

12세도 가담 15초만에 범행...“잡히면 촉법소년 주도” 입 맞춰

'15초'만에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용의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살인 A군, 19살인 B·C군, 초등학교생인 D(12)군은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후 어울렸고, E(12)군은 A군의 동네 후배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경부터 인터넷 도박 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현금화해 수익을 나눌 비율까지 사전에 모의했고

3일동안 온라인에서 금은방 외부 및 진입장 등에 대한 탐색을 하고 신속하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기도 했다.

미리 준비한 망치를 사전에 휘둘러 보고 발각될 경우 촉법소년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하고 나머지 일행을 숨겨주기로 공모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광주시 동구 총장로의 한 금은방에서 15초만에 3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30여개를 훔친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30일 밝혔다.

B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고 C군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초등학교생 D·E군은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A군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B·C군은 소년들이 앞세워 범행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직장상사가 나를 억압해서..." 광양서 흥기 휘두른 50대 입건

광양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에게 흥기를 휘두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29일 오후 4시 10분께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목 부상을 베인 B(58)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불안 증세를 보이던 A씨에게 B씨가 앉으라고 말하자,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억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월산동 모텔 화재 원인조사 남부경찰, 책임자 입건하기로

경찰이 지난 29일 오후 6시 50분께 발생한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텔화재에 대한 원인조사에 나섰다.

광주남부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고 화재와 관련된 책임자를 입건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화재당시 모텔에는 17명의 투숙객이 있었는데 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10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자 중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초기 연기가 지하 유흥주점에서 시작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을 들어 현장검증을 거쳐 책임자를 밝힐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